

<전 자>

"PS · POM 수요증가의 견인차"

전자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95년 전자제품 수출이 무려 450억달러선에 육박하고 생산 및 내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황세를 타고 있으며, 호황국면이 96년에도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자산업, 95년 초호황세 유지

삼성전자를 선두로 95년 전자산업계의 매출은 초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현대전자등 전자 대메이커로부터 부품을 납품하는 전자부품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전자산업계가 기록적인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도체를 비롯 가전제품, 컴퓨터 등 전반적인 전자산업 경기호황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출 신장세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전자기업 매출및이익현황(1995)

(단위: 억원)

구 분	매 출		순 이 익	
	1994	1995	1994	1995
삼 성 전 자	115,180	160,000	9,540	25,000
L G 전 자	51,492	65,000	1,046	1,800
대 우 전 자	24,980	34,000	348	500
현 대 전 자	20,880	39,000	1,269	7,000
L G 정 밀	1,200	1,160	-	-
삼 성 전 기	9,487	14,000	118	400
내외반도체	775	850	28	30
필립스코리아	630	670	30	80
두 인 전 자	175	450	4.3	30
한국광전자	580	630	55	61
한 국 단 자	419	570	43	50
자 화 전 자	150	230	6	11
L G 반 도 체	14,000	26,000	3,700	-
오리온전기	6,700	7,500	200	-

주) 1995년은 추정치

삼성전자의 95년 매출추정치는 국내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6조원대로 94년 매출보다는 5조6000억원, 당초 예상치(14조원)보다는 무려 2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것은 주력제품인 반도체의 수출호황 덕택이다.

이에따라 95년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했던 순이익규모도 연초 예상치 1조7600억원을 크게 웃도는 2조5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게 삼성전자의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매출규모는 국내 6대 재벌그룹의 매출과 맞먹을 정도이며, 순익은 대우전자의 94년 매출실적 2조498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96년에도 매출 20조원대를 넘보고 있다.

단일기업으로서의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인 삼성전자의 이러한 매출 및 순이익 기록행진은 앞으로도 좀처럼 깨지기 힘들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전부문 국내 최고의 판매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LG전자는 95년 총매출이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3년 4조원대, 95년 5조원대에 이르렀던 매출액이 처음으로 6조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94년 가가스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던 순이익규모도 1800억~2000억원대에 달해 9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LG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컬러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등은 소폭 흑자를 보이거나 손익분기점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운관·부품·인쇄회로 기판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투자단체인 LCD를 비롯 PC·휴대폰 등은 매출이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96년 매출목표를 95년대비 20~25% 늘어난 8조50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96년부터 가동되는 해외공장과 판매법인이 많아 매출 신장은 무난하다는 예상이다.

대우전자의 94년 매출액은 2조5000억원선으로, 95년에는 이보다 거의 9000억원이 늘어난 3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공장이 속속 가동되면서 해외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전자의 순이익도 94년보다 150억원정도가 불어난 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전자는 가전제품이 매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A/V제품이 매년 성장하는 단계로, 특히 백색 대형가전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이익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대전자가 예상하고 있는 95년 매출은 4조원선으로 94년보다 1조원정도가 커진 규모이다. 이에따라 8000억~9000억원 상당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호황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덕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전체매출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통신기기등 시스템분야는 뒤쳐지고 있다.

현대전자는 반도체 때문에 96년 매출 7조원선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6년 전체매출의 70%가 수출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용전자 경기전망(1996)

(단위: 억원, 100만달러, %)

구 분	생 산			수 출			시 판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P C	10,569	11,703	10.7	205	167	▽18.1	9,577	11,616	21.3
모 니 터	23,775	30,004	26.2	2,343	2,984	27.4	2,899	3,568	23.1
프 린 터	3,911	4,150	6.1	58	62	6.7	2,994	3,168	5.8
보조기억장	4,454	6,618	48.6	362	516	42.8	1,649	2,551	54.7
치	2,389	2,881	20.6	199	236	18.7	761	1,054	38.6
H-DD	1,674	1,963	17.3	23	24	8.5	892	1,101	23.5
FDD	652	743	14.1	46	52	14.9	269	305	13.5
키 보 드	4,371	4,429	1.3	208	227	9.6	2,199	2,007	▽8.7
유선전화기	5,295	5,533	4.5	74	77	4.3	5,751	6,056	5.3
전자교환기	4,579	5,293	15.6	342	408	19.3	1,572	1,479	▽5.9
팩시밀리	7,035	8,990	27.8	596	687	15.4	2,165	3,632	67.8
휴 대 폰	1,244	1,538	23.7	40	80	100.0	1,035	1,261	21.9
PAGER	1,191	1,364	14.5	148	192	29.7	16	13	▽13.6
S V R	1,004	1,107	10.2	45	41	▽6.7	439	586	33.5
CB트랜시버	1,227	1,181	▽3.6	89	80	▽9.7	423	430	1.7
안 테 나	2,339	2,954	26.3	282	355	26.2	146	184	26.6
TV카메라	1,211	1,267	4.7	35	39	11.6	535	549	2.7
의료기기	1,649	2,071	25.6	74	111	49.3	324	342	5.8
전자계측기	106,577	129,806	21.7	7,853	9,514	21.1	42,404	52,054	22.7

자료) 한국전자진흥회

전자부품도 덩달아 호조

삼성전기·LG반도체·오리온전기등 부품업체도 영업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 최대 전자부품 메이커인 삼성전기는 95년 매출을 94년보다 47.5% 늘어난 1조4000억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예상치 1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전기는 품질과 생산성면에서 일본기업을 따라 갈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연초에 엔고덕을 톡톡히 봤다. 95년 일본 전자부품 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유럽 등지로부터 오더가 증가, 매출확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룹의존도(삼성전자·삼성전관 등)가 45%선에 달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계열사 호황이 매출호조에 반영됐다면서 95년 순이익규모도 94년보다 3~4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현재 주력품목인 편향코일과 고압변성기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1위를 달리고 있다.

94년 670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던 오리온전기는 95년 매출을 7500억원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매출확대로 순이익규모도 94년 200억원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브라운관은 세계적인 공급부족현상을 빚고 있는데 물량공급에 한계가 있어 대폭적인 매출 및 이익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94년 1조4000억원의 매출을 실현했던 LG반도체는 95년 매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이익도 94년 3700억원에서 95년 1조원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용전자, 전자산업 주도

산업용전자는 96년부터 전자산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내수호조와 수출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6년 생산규모가 13조원선에 육박, 처음으로 가정

용전자의 생산규모를 앞설 전망이다.

수출에서도 매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전자를 제치고 95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인 컴퓨터시장의 활황으로 모니터 등 주변기기가 호조를 보이고 이동통신기기도 호황세를 지속, 산업용전자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전자 경기전망(1996)

(단위: 억원, 100만달러, %)

구 분	생 산			수 출			시 판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C - T V	22,901	24,160	5.5	1,755	1,876	6.9	7,929	8,349	5.3
V C R	16,768	17,076	1.8	1,483	1,502	1.3	3,943	4,081	3.5
캠 코 더	2,047	2,307	12.7	215	249	15.8	369	411	11.4
라디오카세트	8,310	9,622	15.8	734	867	18.2	1,179	1,145	▽2.8
트	7,101	7,995	12.6	308	337	9.5	4,483	5,011	11.8
컴 포 닌 트	5,611	5,678	1.2	489	477	▽2.4	1,691	1,949	15.3
카 오 디 오	12,886	13,633	5.8	401	425	6.2	8,952	9,453	5.6
냉 장 고	8,596	9,343	8.7	224	264	17.8	7,124	7,672	7.7
세 탁 기	8,667	9,126	5.3	828	866	4.6	1,663	1,757	5.7
M W O	3,412	4,084	19.7	279	328	17.7	1,209	1,469	21.5
룸 에 어 콘	107,704	114,067	5.9	7,802	8,220	5.3	42,938	45,486	5.9

96년 산업용전자 수출은 95억달러로 95년보다 21.1%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통신사업서비스 도입과 정보화 진전 등에 힘입어 통신기기·컴퓨터·주변기기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지역도 다변화되고 현지 생산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견제가 심화되고 엔고 퇴조로 가격경쟁력이 약화, 수출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가정용전자(가전) 수출전망

(단위: 100만달러, %)

기 관	1995	1996	증감률
전 자 진 흥 회	7,802	8,222	5.3
무 역 협 회	7,570	7,410	▽2.1
산 업 연 구 원	7,849	8,704	10.9
대우경제연구소	-	7,427	▽5.1
LG경제연구소	-	8,373	6.9
삼성경제연구소	-	8,601	7.2

내수는 PC기업들의 지속적인 가격인하와 윈도우즈95에 따른 PC환경의 대용량화가 이뤄지고 외국기업들의 저가 모델 투입이 예상된다. 이동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PC 등은 개인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기업수요는 설비 투자가 감소, 전망이 다소 부정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모니터(산업용)는 수출증가율 27.4%, 내수증가율 23.1%로 95년에 이어 고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세계 컴퓨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고성능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구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컴퓨터 경기는 96년에도 호황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즈95에 의해 촉발된 기록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96년 상반기에는 고성장이 예상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 95년보다는 낮지만 성장률이 17.2%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PC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지고 있어 96년 세계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PC시장은 96년에도 95년과 비슷한 22%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수량은 171만대 전후로 추정된다.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저가의 외국기종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린터는 수출 6.7%, 내수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가형 레이저빔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교환기는 직수출이 부진, 증가세가 4.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기는 한국통신 구매물량이 감소하고 WTO결과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팩시밀리는 생산보다는 수출이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팩시밀리는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 등 유럽지역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도체 경기전망(1996)

구 분	(단위 : 억원, 100만달러, %)								
	생 산			수 출			시 판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메모리	119,253	168,628	41.4	14,605	20,949	43.4	4,289	1,096	42.1
MOS LOGIC	3,987	5,716	43.3	344	507	47.3	765	1,084	41.6
MOS	6,420	7,138	11.1	441	471	6.8	1,118	1,384	23.7
ANALOG	5,253	5,881	11.9	361	411	13.8	537	601	11.9
트랜지스터	2,070	2,142	3.4	216	210	▽2.9	44	48	9.0
다이오드	1,487	1,670	12.3	119	124	3.9	469	195	15.3
광소자	194,838	263,839	35.4	22,839	31,314	37.1	7,756	10,502	35.4

일반전자부품 경기전망(1996)

구 분	(단위: 억원, 100만달러, %)								
	생 산			수 출			시 판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1995	1996	증감률
L C D	1,699	2,027	19.3	130	162	25.1	242	268	10.9
CRT 등	25,913	28,629	10.4	1,676	1,900	13.4	2,519	2,697	7.0
저 항 기	2,037	2,089	2.5	75	72	▽3.3	444	466	4.9
변 성 기	1,791	1,945	8.6	44	50	13.5	996	1,078	8.2
콘 텐 서	7,551	8,025	6.2	287	297	3.7	1,457	1,559	6.9
코 넥 타	1,430	1,527	6.8	85	88	3.1	1,245	1,333	7.1
스 위 치	3,575	3,687	3.1	87	91	4.4	2,303	2,348	1.9
P C B	8,385	8,989	7.2	383	413	7.8	1,517	1,601	5.6
튜 너	2,968	3,149	6.1	218	233	6.7	167	177	5.9
자기헤드	8,083	8,456	4.6	489	523	6.9	547	563	2.9
자기테이프	9,234	9,434	2.1	991	1,029	3.9	1,044	1,053	0.8
소형모터	3,790	4,304	13.5	121	130	8.0	1,701	1,952	14.7
전 지	1,110	1,312	18.2	22	26	19.5	907	1,060	16.9
합 계	93,153	108,020	15.9	5,923	7,046	18.9	17,848	20,490	14.8

휴대폰은 수출 15.4%, 내수시판 67.8%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휴대폰은 단말기의 가격인하와 서비스요금 인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CT-2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방식 서비스 확대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가입설비비 폐지 등으로 휴대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선호출기(Pager)는 산업용전자중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96년에도 수출규모가 8000만 달러로 확대돼 95년보다 2배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체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과다경쟁으로 채산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수신기(SVR)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의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수출확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

가정용전자, 수요둔화세 지속

가전제품은 96년에도 저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둔화현상과 직수출물량 감소로 3~5%대의 소폭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해외시장 악화와 해외수출 확대 등의 여파로 수출규모가 격감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가전산업이 성장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96년 가전제품의 생산은 5.9%, 수출은 5.3%, 시판은 5.9% 증가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내구재 중심의 소비증가추세가 이어지면서 대형·고급가전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 수출은 어려움에 봉착하겠으나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고효과가 소멸돼 95년 누린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원화절상으로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생산시설 이전으로 직수출이 줄어들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져 수출물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호전과 올림픽 특수로 TV·VCR 등 일부 영상기기의 수요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일본·홍콩·대만에 이어 베트남·필리핀·인디아까지 가세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이 최대 수출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및 러시아 등지에 대한 가전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남미지역은 컬러 TV·VCR 등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에서는 유통시장 개방과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라 다소 고전할 전망이다.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냉장고·세탁기·컬러TV 및 VCR의 대체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등장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TV와 냉장고는 한계보급률에 도달해 각각 3.9%, 2.0%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비해 전자레인지 96년 국내수요가 124만대로 95년보다 7.8% 증가, 주요 백색가전중 가장 높은 내수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6년 가전경기를 품목별로 보면 컬러TV의 경우 생산 5.5%, 수출 6.9%, 내수 5.3% 등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엔고효과가 사라져 95년까지 지속돼온 수출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브라질·파라과이 등 중남미지역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시장에서는 대형화 소비추세에 따라 25인치이상 제품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컬러TV의 96년 세계수요는 95년보다 4% 늘어난 1억700만대에 이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이 8%정도 증가, 신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연간 수출규모가 14억~15억달러선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VCR은 96년에도 수출과 국내시판이 1~3%의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EU지역 수출일변도의 수출구조가 유럽·남미·동남아지역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CR의 세계수요는 95년 4285만대에서 96년에는 4400만대로 늘어나고 보급률이 낮은 아시아·중남미 및 동유럽지역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백색가전중 성장세가 가장 높은 세탁기는 96년에도 수출 17.8%, 시판 7.7% 등의 비교적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96년 수출규모가 처음으로 3억달러선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96년 세탁기의 세계 수요량은 1960만대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수요량이 3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냉장고는 중남미시장이 9% 늘어나는 것을 비롯, 아시아·동유럽지역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출과 내수 모두 5% 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컴포넌트 수출은 96년에도 10%선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내수는 30만원대 보급형 하이파이기종의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룸에어컨은 17.7%의 수출증가세를 기록, 수출신장세가 이어지고 국내시판도 특소세 인하 및 예약판매 등으로 20% 이상의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

캠코더도 수출 15.8%, 내수 11.4%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소득향상과 추가 가격인하에 따른 신규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전자부품, 성장세 둔화전망

96년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은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95년말부터 표면화된 A/V기기와 통신기기의 수출둔화가 9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직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로컬수출과 내수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컴퓨터 등 일부제품을 제외한 세트제품 경기둔화에 근거한다. 가전 및 A/V제품은 유통시장 개방 및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내수시장에서 고전하고 엔고효과도 감소, 수출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예상이다.

통신기기분야에서 무선기기가 내수호조를 보일 것이나 수출은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외 부품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부품메이커의 이미지가 나아져 전자부품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가격 및 시장점유 경쟁 가열로 상황이 만만치 않다.

A/V부품의 경우 동남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일본기업들이 저가격·고품질제품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데다 컴퓨터부품도 대만 중소메이커에 비해 경쟁력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이에따라 부품경기도 96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30%를 웃돌았던 수출증가세도 96년 20%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95년 호황국면을 보였던 내수와 생산도 급격하게는 위축되지 않으나 신장세가 꺾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수출과 생산이 20%이상 고성장할 부품은 칩부품·다층PCB·노트북부품이며, 컬러모니터용 부품도 호황이 예상된다. A/V부품을 비롯한 소재부품 등은 10%이상의 안정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부품별로 보면 브라운관은 96년에도 여전히 수요과잉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 호황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브라운관은 동남아·중국·남미를 중심으로 신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선명TV용 및 컬러모니터용 디스플레이 부품도 해외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초기단계인 LCD는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생산이 20%이상 증가하는 등 전자부품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피커·소형모터·튜너·콘덴서 등 조립가공부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95년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94년 20%정도 늘어났던 수출과 생산증가율은 3~5%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은 물론 국내기업까지 동남아 현지생산체제를 완결함으로써 이들 지역 생산부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요과잉으로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 세계 반도체시장 자체가 메모리 위주로 성장, 우리기업에 유리해지고 있다.

PC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고 일본 및 아시아지역의 잠재수요가 가시화돼 수요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96년 반도체(메모리중심)는 생산 35.4%, 수출 37.1%, 내수 35.4%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D램의 경우 4메가D램은 위축되고, 16메가D램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용 화학제품 품목별 희비교차

국내 전자산업의 호황으로 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역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표적인 유도품이 ABS, PS, EP이다.

국내 ABS 수요가 자동차와 전자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94년 국내 ABS 수요량은 21만7000톤에 달해 93년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BS 수요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부문의 호황으로 인한 성장세로 분석되고 있다.

95년 국내수요는 22만8100톤으로 94년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자연증가율에 그친 수준으로 국내 ABS시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94년 PS 국내수요는 총 53만300톤으로 93년 53만8000톤에 비해 0.9% 증가에 그쳤다. 95년 PS의 전기·전자용 수요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21만5200톤을 기록했다.

이러한 국내수요 감소는 대량 수요처의 하나인 카세트테이프용 수요가 콤팩트디스크의 선호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범용도 하중에 잘 견디는 SAN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95년에 비해 96년은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96년 국내수요는 자연

증가율에 해당하는 7.2% 증가, 57만3000톤으로 예상된다.

국내 EP시장은 자동차 및 전자산업 호황에 편승해 급신장, 호황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 심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대 범용EP 중 PC는 55%가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생산은 94년 2만1600톤에서 95년 2만4000톤으로 증가했다. 전자용으로는 94년 1만7600톤, 95년 1만8500톤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PBT는 94년 국내수요 1만4000톤에서 95년 1만4600톤으로 약상승을 보였다. PBT는 전기·전자부문에 28%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강세로 인해 큰 폭의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POM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기업들의 신증설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유도품이다. 국내 POM 수요는 94년 1만9000톤에서 95년 2만7000톤으로 증가했다. 전기·전자용 수요는 32%이다

Nylon은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국산품보다 고가인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줄지않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Nylon6은 94년 국내수요가 1만4100톤에서 95년 1만4200톤으로 정체되었다. 이중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수요는 20% 정도이다. Nylon66은 국내수요가 94년 1만600톤에서 95년 1만1800톤으로 나타났으며 24.5%가 전기·전자부문으로 사용되었다.

MPPO의 국내수요는 연간 7000톤으로 91년이후 10% 감소했다. 이것은 MPPO보다 가격이 낮은 ABS나 PS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다. MPPO가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수요는 40%이다.

<화학저널 1996/2/5>